



여성 은사 기념 주일
2025년 3월 9일



The Raising of Dorcas by Saint Peter, final sketch, Violet Oakley. La Salle University Art Museum, Philadelphia, PA

성도와 과부

사도행전 9장 36-43절을 뒤집어 보기

BY REV. DR. LAURIE KRAUS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부활시킨 이야기를 읽으면, "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베드로도 대단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때 겁 많고 충동적인 제자에 불과했던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죽음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필요로 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사명이 걸림돌이 되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면모에 주목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자 누가는 다비다에 대한 이 놀라운 부활 이야기에서도 교회 여성들에 대해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모든 복음서 저자 중 누가가 외부인, 약자, 잊혀진 자를 가장 확실하게 옹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지요. 때로는 가장 큰 비전에 열정적으로 전념하다 보면, 애초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던 작지만 중요한 진리와 실천을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숲은 보지만 나무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라면 누구나 성도라고 불렀을 한 여성에 관한 이 이야기속에서, 누가는 남성은 "성도"와 "제자"라고 부르지만 여성은 그저 "과부"라고만 부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끔은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원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는 이들은 조연 캐릭터나, 무대 뒤를 채우는 "엑스트라" 혹은, 주인공의 여정이 담긴 주요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배경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때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들의 간청을 듣고 바쁜 일정을 미루고 있을 때,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비다가 죽은 집에 도착한 그는 슬픔에 잠긴 과부들로 묘사된 공동체를 만납니다. 그들은 친구 도르가/다비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베풀고 깊은 연대로 형성된 자부심 강하고 강력한 공동체 안에서 다비다의 놀라운 관대함의 유산을 공유하고, 누가를 환영하고자 합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이거늘."(사도행전 9:39b).

이 문장은 짧지만 특별합니다. 이 문장은 누가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고 싶어할 때, 이를 잠시 멈추게 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비다의 부활이라는 가장 놀라운 핵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했고, 별다른 생각 없이 여인들을 방 밖으로 안내해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청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다비다의 임종 곁에서 기도할 때, 아마도 그는 다비다의 친구들이 누가 옷이 필요한지, 어떤 가족과 음식이 필요한지 상의하는 목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누가 외로웠는지, 누가 축하할 일이 있었는지. 그는 감사로 들어가는 문으로 걸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라보기. 경청하기. 자신이 할 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내버려두기. 베드로가 변화하고 교회 전체가 그와 함께 돌아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언제부터 그 여인들을 '과부'로 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제자'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다비다가 깨어났을 때, 베드로도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성도와 과부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베드로가 보기에 모두 제자이자 성도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비다의 침대 곁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가 다비다의 집을 떠난 직후, 무두장이인 시몬과 함께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베드로는 예전이라면, 무두장이와 함께 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꿈을 꾸었고, 로마 군인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내렸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시다.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과부들과 '다른 사람들'로 불리던 방이 갑자기 성도들이 교통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10:34-48).

예배로의 부름

(원하는 경우, 예배로의 부름을 말할 때 세례반을 채우거나 물이 튀는 소리를 재생합니다)

창조의 아침, 혼돈이 지배하고 땅이 형체도 없이 텅 비어 있던 날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로 움직이며 속삭이셨다.
"이리 오거라, 여기에 온 너를 환영한다."

건조하고 절망적인 사막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도망쳤다.
미리암의 딸들이 춤을 추고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고
성령께서 손짓하셨다. "이리 오거라, 여기에 온 너를 환영한다."

바빌론의 강변에서, 쫓겨난 이들은 처참하게 울었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없었다.
정의의 영이 말씀하셨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 이리 오거라, 여기에 온 너를 환영한다."

선지자가 외친 요단 강가에서,
형제 예수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며 말씀하셨다.
"이리 오거라, 여기에 온 너를 환영한다."

새 예루살렘을 흐르는 수정 강 근처에서,
열방을 치유하는 잎을 가진 생명나무 곁에서,
성령님과 신부가 "목마른 자들아 오라,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고 이곳에서 환영받는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찬송가

"Here in This Place" (GtG 401)¹

참회의 기도

모두: 날실과 씨실로 천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단절되고 영망인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희는 실패에 낙담하고, 나약함에 쓰러집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회복해 주소서. 저희의 미래를 회복해 주소서. 저희 삶이 펼쳐지는 태피스트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소서. 끝없이 앞뒤로 움직이는 베틀, 손과 노력을 저희가 인내하게 하소서. 저희는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너무 많이 시도했거나 전혀 시도하지 않은 실의 가닥과 매듭, 엉킨 실만 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소서. 결국, 저희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여러분이 엮어내는 무늬가 모두에게 분명

하기를, 그 날실에는 자비가, 씨실에는 사랑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²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인도자: 가장 푸르른 녹음인 여러분,
태양에 뿌리를 둔 당신은 찬란한 빛으로 빛납니다.
이 지상의 존재의 순환 속에서 당신은 매우 섬세하게 빛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의 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³

피조물의 자녀인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 읽기

시편 131편

신약 성경 읽기

사도행전 9:36-45

설교/명상

다음 시 중 하나를 사용하여 현대 여성의 삶에서 평범한 순간이 다비다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강조해 보세요. 이 두 편의 시는 사도행전의 설교 본문을 뒷받침하는 대위법을 제공하며, 우리가 여성의 은사를 보고 받을 때 경험하는 변화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숙녀분들 오세요"⁴

제임스 오트리 지음

슬픈 얼굴의 여성들이
달콤한 간식과
티 케이크, 피칸 파이, 푸딩, 추억이 든 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우리는 맛을 보고 그들은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나는 앤 양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간식을 가져오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이야기들을 모두 말하고
해야 할 모든 일 행하며
질서 정연한 영혼처럼
슬픔에 잠긴 밤을 보낸 침대를 정리하며,

꺼져가는 불씨 살리며,
테이블과 찬장 채우며,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재촉하기도 달래기도 합니다.

마치 죽은 자들이 우리의 든든한 배위에서 더 편히 쉬
기라도 하는 것처럼.

앤 양은 아마도 그 컨트리 햄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강인한 정신력이 먹어치울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은 없습니다.

바나나 케이크는 그녀만의 레시피입니다
그녀가 제 스푼브레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
합니다

그녀는이 코블러에 딸기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의 기분은 바뀌어,
먹고 웃으며 감사합니다.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또 한번 일을 잘
해냈다는 것을 압니다.
적절한 때에 말입니다.
어린 소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이른 봄의 묘지를 잊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교회를 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여성들이 베풀고 되받는 것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혹은

"현명한 여성들도 경배하러 왔습니다"⁵
잔 리차드슨 지음

현명한 여성들도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타오르는 별을
보기 훨씬 전에
이 여성들의 자궁에서도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길이 열릴 것을 믿으며
걸었습니다.

현명한 여성들도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떤 왕의 지시나
허가도
구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권한으로
스스로 원하여서
스스로 간절히 바라며 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왔고,
소문을 내지도 않았습니니다.
두려움을 퍼뜨리지도 않았습니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들의
자매인 라헬의 슬픔에 찬 통곡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
습니니다.
불러일으키거나,

그들의 자매인 라헬의 슬픔에 찬 통곡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니다,

현명한 여성들도 경배하러 왔습니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용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니다.
출산 후 씻을 물,
따뜻한 밝힐 불
포대기를 위한 담요를 가지고 왔습니니다.

현명한 여성들도 경배하러 왔습니니다.
그들 중 적어도 세명은
분만 중인 마리아를 안고,
함께 울부짖었습니니다.
출산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녀의 귀에
축복을 속삭여 주었습니니다.

현명한 여성들도 왔습니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니다.
현명한 여성은 언제나 그렇듯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니다.

찬송가

"Though I May Speak" (GtG 693)
"Come and Seek the Ways of Wisdom" (GtG 174)

회중의 기도

주기도문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재구성했습니다.⁶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당신의 많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충만함을 이루시며,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 속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더 큰 지혜와 연민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거짓 생각과 욕망에서 구해주소서.
저희의 마음과 전부와 삶의 빛이
영원히 당신께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A Prophet-Woman Broke a Jar" (GtG 201)

축복 및 축도

제게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입니다. . .
그리고 세상은 작은 것. . .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것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모든 일이 안전할 것을 믿으십시오.⁷

로리 크라우스 목사는 미국장로교 인도주의 및 글로벌 에큐메니칼 참여 담당 디렉터입니다. 교단 본부에서 일하기 전, 로리는 뉴욕 북부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주

1. GtC indicates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Louisville, KY: Geneva, 2013).
2. Pat Kozak and Janet Schaffran, *Life Prayers: from around the world*. Edited by Elizabeth Roberts and Elias Amidon (San Francisco: HarperSan Francisco, 1996), 93.
3. Hildegard of Bingen, quoted in *Life Prayers*, p. 14.
4. James Autry, *Nights under a Tin Roof* (Oxford, MS: Yoknapatawpha, 1985).
5. Jan Richardson, *Night Visions*, (Cleveland, OH: United Church, 1998), 94–95.
6. A feminist recasting of the Lord's Prayer by Martha Weathers.
7. Julian of Norwich, "Revelations of Divine Love," or "Showings."